

# 페라미비르(peramivir)

## 요약

페라미비르는 항바이러스제로서 인플루엔자 A 및 B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을 치료한다. 주사제로서 2세 이상 소아(단, 페라미비르로서 150밀리그램은 6개월 이상) 및 성인에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인플루엔자 감염의 초기 증상이 발현되고서 48시간 이내에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다른 항인플루엔자 바이러스제의 사용을 먼저 고려한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투여한다.

외국어 표기	peramivir(영어)
CAS 등록번호	330600-85-6
ATC 코드	J05AH03
분자식	C <sub>15</sub> H <sub>28</sub> N <sub>4</sub> O <sub>4</sub>
분자량	328.413 g/mol

동의어: 페라미비어, 페라미버

유의어·관련어: 항바이러스제, antiviral agent, antiviral drug, 항인플루엔자 바이러스약, anti-influenza antivirals, 인플루엔자 감염 치료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treatment of influenza virus,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신종플루약, 뉴라미니데이스 저해제, neuraminidase inhibitor, 페라미플루, Peramifl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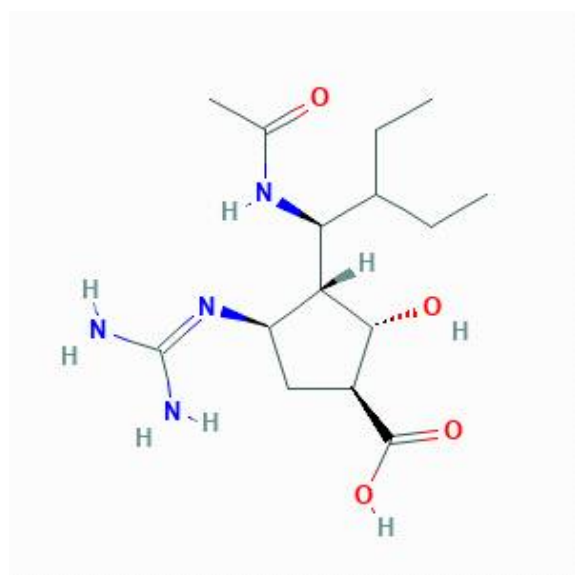


그림 1. 페라미비르의 구조식

## 약리작용

페라미비르는 항바이러스제로서 인플루엔자 A 및 B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을 치료한다. 사람에게서 주로 질병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과 B형이 있으며, 계절유행독감을 유발한다. 페라미비르는 바이러스 복제과정에서 필요한 효소인 뉴라미니다제(neuraminidase)\*의 활성을 억제하는 뉴라미니다제 억제제로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복제과정을 차단하여 증식을 막고 감염을 치료한다. 페라미비르는 신종플루† 바이러스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신종플루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 뉴라미니다제(neuraminidase):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입자 외부에 위치한 거대한 당단백질이다. 바이러스 복제과정에서 복제를 마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입자를 세포로부터 방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 신종플루: 인플루엔자(독감)의 일종으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을 말한다. 계절유행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형 및 B형인 반면, 신종플루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형 중에서도 변이형(H1N1) 바이러스이다.

## 효능효과

6개월 이상 소아 및 성인의 인플루엔자 A 및 B 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한다. 인플루엔자 감염의 초기 증상이 발현되고서 48시간 이내에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제품으로는 페라미플루®가 있다.

## 용법

페라미비르는 증상 발현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사액은 의료 전문가에 의해 조제되고, 점적 정맥주사\*로 15분 이상에 걸쳐 1회 투여되어야 한다.

- 성인에게는 300 mg를 투여 한다.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는 600 mg을 투여할 수 있다.
- 2세 이상 소아에게는 페라미비르로서 10 mg/kg을 15분 이상 단회 점적정주한다. 최대 1회 투여량은 600 mg이다. (단, 페라미비르로서 150 밀리그램은 6개월 이상)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점적 정맥주사(intravenous infusion): 약물을 수액에 희석하여 높은 곳으로부터 긴 시간에 걸쳐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정맥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하는 주사.

## 경고

- 페라미비르는 인플루엔자 A 및 B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전체에게 투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구제나 흡입제 등 다른 항인플루엔자 바이러스제제의 사용을 먼저 고려한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투여한다.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다른 약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투여하기도 한다.
- 페라미비르는 인플루엔자 A 및 B 바이러스 감염 이외의 감염증과 세균 감염증에는 효과가 없다. 또한 예방목적 투여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정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 주의사항

- 신장에 환자에게는 투여 시 용량조절이 필요하다. 고령자에게는 사용한 경험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주의해서 투여해야 한다.
- 입원을 해야하는 위험한 상태에 있거나 상태가 심각한 환자에 대한 치료정보는 없다.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약물치료 중인 환자 및 면역억제 약물(부신피질호르몬제, 면역억제제 등)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투여한 자료는 많지 않다. 또한 반복 투여했을 경우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 페라미비르와 유사한 약물에서 투약 후에 이상행동 등의 정신신경증세가 발생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상행동에 의한 추락 등의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상행동 발생의 염려가 있을 경우와, 자택에서 요양을 할 경우에 투여 후 적어도 2일 간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플루엔자 뇌증 등에서도 동일한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 페라미비르는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혈중에 높은 농도가 지속되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투여 시 용량은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수치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 세균 감염증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합병증으로 나타나거나 인플루엔자 증상과 혼동 될 수 있다. 세균 감염증인 경우 및 세균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균제를 투여하는 등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creatinine clearance): 신장을 흐르는 혈장 중에서 크레아티닌(근육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배설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1분간 신장에서 오줌 속으로 배설되는 물질을 함유하는 혈장(액)의 양으로 나타낸다. 신장의 기능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신기능부전에서는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감소된다.

## 부작용

페라미비르 투여 시 발생 가능한 주요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적 부작용(사용자의 1~10%에서 보고)

- 소화기계: 설사, 오심
- 기타: 간수치 상승, 단백뇨, 림프구 증가, 혈중 포도당 증가 등

### 드문 부작용(사용자의 1% 미만에서 보고)

발진, 습진, 두드러기, 구토, 복통, 식욕부진, 복부불쾌감, 간수치 상승, 혈액요소질소\* 상승, 호산구 증가, 혈소판 감소, 현기증, 불면, 혈뇨, CK<sup>†</sup> 상승, 뇨당, 시야가 흐려짐 등

\* 혈액요소질소(blood urea nitrogen, BUN): 혈액 중의 요소에 포함되는 질소분을 말하며, 대부분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혈액요소질소 측정을 통해 신장 기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크레아틴키나제(creatine kinase, CK): 우리 몸의 심근, 골격근, 평활근, 뇌 등에 분포하는 효소로 그 부분이 손상을 받으면 혈액 중에 유출된다. 혈액 중 CK는 골격근(근육)이나 심장세포가 손상될 때 증가되므로 근육의 질환이나 심근경색의 조기 진단에 사용된다.

## 상호작용

페라미비르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는 인플루엔자 약독화 생백신과 동시 사용할 경우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비강투여용 인플루엔자 약독화 생백신과의 병용에 대해서는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페라미비르를 투여하기 2주 이내 또는 투여 후 48시간 이내에 투여하는 것은 피한다. 불활성화 인플루엔자 백신은 페라미비르 투여와 관계없이 아무 때나 투여할 수 있다.

## 소아, 청소년 사용

2세 미만 소아(단, 페라미비르로서 150밀리그램은 6개월 이상)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 고령자 사용

고령자들은 일반적으로 간기능·신기능 등이 감소된 경우가 많고, 여러 질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여 시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한다.

## 임부·수유부 사용

- 동물실험에서 태반을 통과하는 것이 보고되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치료상의 이익이 모체와 태아에 대한 위험성보다 크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투여하여야 한다.
- 동물실험에서 유즙으로 이행하는 것이 보고되었으므로 수유부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수유를 피하도록 한다.